第278回國會 (定期會) 教育科學技術委員會會議錄 第 6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8年9月19日(金)

場 所 教育科學技術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계속)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나. 과학기술부 소관
2.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계속)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나. 과학기술부 소관
3.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審査된案件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계속) ····· 1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나. 과학기술부 소관
2.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계속) ····· 1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나. 과학기술부 소관
3.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1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14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부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계속)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나. 과학기술부 소관
2.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계속)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나. 과학기술부 소관
3.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위원장 김부겸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회의에서 200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서안 작성을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도록 위임한 바 있습니다.

시정요구서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시하신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간사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시정요구서안 마련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임해규 위원님, 안민석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세 분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임해규 위원님 나오셔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해규 위원입니다.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 및 과학기술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에 대하여 간사 간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 및 과학기술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점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사 간 협의를 한 결과 국회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25건, 과학기술부 소관 12건 등 총 37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교부금의 지원 대상 선정과정 및 집행절차 등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하고 자금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교부됨으로써 시도 교육청이 회계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고 나눠 먹기식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교부금의 배분 기준 및 배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에 자금 배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한 일부 사업단이 국제협력경비를 형식상의 국제학술회의 참석 경비로 집행하거나 참여 자격이 없는 비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협력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국제회의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대학원생의 참여 자격 유무에 대한 개개인의 증빙의무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일부 국립대학 병원에서 예산의 부당 지출 사례가 발생하였고 의료 수익 및 당기순이익 적자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학 병원 전체에 대해 운영 실태를 파악한 후 병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각 사업단이 집행한 예산의 비목별 구성을 살펴보면, 장학금이나 학생 교육 및 실습활동 지원비의 비중이 교육과정개선비나 산학협력비에 비해 과다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우수인력 양성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설계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자율권은 인정하되 사전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장학금 등의 비중이 과다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사업의 대출금리가 2007년도 1학기 6.59%, 2007년도 2학기 6.66%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이자 부담이 과중하므로 대출금리를 최대한 인하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과학기술부 출연사업의 일부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수행되고 있는바 출연사업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출연의 법적 근거를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은 예산 확보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타 사업에 투입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이자수입을 사용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많은 위원들로부터 기타 많은 지적사항과 또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안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함께 채택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이상으로 2007년도 결산에 대한 간사 간 협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겸 임해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또 우리 위원회가 여러 가지로 결의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전혁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우리 조전혁 위원님!

○조전혁 위원 지금 우리 국회 국정감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불법적인 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게 전교조 경남지부에서 작성한 공문입니다. 이걸 각 학교장한테 다 공문으로 내려 보냈는데요, 제

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거부 협조 요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자료 요청을 거부하라고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으로서 고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저는 우리 교육과학위원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강력히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제가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방금 조전혁 위원께서……

○권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부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요 건에 대해서요?

○권영길 위원 예, 요 건에 대해서……

○위원장 김부겸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 위원 다른 건도 발언이 있는데 이 건 끝내고 신청……

우리 조전혁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국회의원 국정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도 또 전교조 경남지부가 이런 요청을 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 그 목적, 선의와 다르게 현실적으로 일선 교사들에게, 학교에 어떻게 그게 요구되고 있는지 정확한 진상이 좀 필요할 겁니다.

실제 우리가 요구한, 선의와는 다르게 과도하게 업무 방해가 된다든지 또는 왜곡되는 식으로 이렇게 전달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상이 좀 더 파악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어떤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전혁 위원 위원장님,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조 위원님!

○조전혁 위원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다음이나 이런 데 카페에 들어가시면요, 진짜 조직적으로 업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켜 놓은 게 전교조 장흥지회입니다. 이건 경남이 아니고 전라도 지역이지요. 장흥지회에서 ‘조전혁 의원 요구자료 대응지침’ 그래 가지고 이러한 경우는 요렇게 대응하라, 예컨대 현수막 부착에 관한 건, 근거자료, 사진 동영상이 없다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해야 함, 이런 식으로 지금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알겠습니다. 조 위원님 문제 제기 자체를 알겠고요.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유인물을 통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이런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좋을지, 또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해당기관인 경상남도교육청이 앞으로 어떤, 이 국감에 대한 준비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세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위원장 김부겸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세 분 간사와 협의해서 이 문제는 결정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위원장으로서는 이런 행위가 일어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안민석 위원 예.

○위원장 김부겸 안민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민석 위원 토론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장관님께서 존경하는 조전혁 위원님께 수능점수 자료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능시험이 실시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수능 원점수가 외부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그만큼 이 정보와 자료가 가지는 폭발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단 한 번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한 교육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요구하면서 지금 쟁송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장관께서 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한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혹시 청와대하고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논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전혀 없었습니다.

○안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전혁 위원님께 자료 공개하신다고 했으니까 제출,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느 한 특정 위원에게 정보가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저희 민주당 위원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 그러면 이 폭발성 있는 정보가 독점적으로 공개되게 되면 이 정보가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고 또 설사 악용하지 않더라도 사항에 따라 가지고 악용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을 해 주시되 이 제출된 자료는 독점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간사로서 저희 민주당 위원 전원에게도 이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능 점수 자료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후에 교육위 차원에서 이 범위를 다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권 위원님……

○권영길 위원 같은 건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부겸 이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권영길 위원 지난번 이 문제가 났을 때 제가 장관께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미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위원장께서 제의한 대로 간사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조전혁 위원님의 요구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날 위원장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현 단계에서 합의에 의해서 잘 처리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공개하는 것으로 거의 전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위원뿐만 아니라, 정영희 위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에게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임해규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부겸 임해규 위원님.

○임해규 위원 우선 장관께 여쭤 보겠는데요, 원자료를 제출하겠다, 물론 제출의 전제가 제출받은 위원께서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나 부작용이나 이런 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제출될 경우에 제출하는 내용이 뭐고 제출되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그 활용된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고 그것이 이후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예상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판단이 실무선에서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무적인 판단이 있으셨으면 아무래도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파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여야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간사 간에 협의를 신중하게 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조전혁 위원께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학업성취도가 적절히 공개되고…… 적절히 공개되어야지요. 이미 그것은 법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수준이면 그것이 기초학력 미달한 자가 많은 열악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용도와 목적이고 또 하나는 그런 학력 편차가 있는 것을 연구하도록 해서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임해규 위원 그런 것을 올바로 드러내야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 취지가 있고, 거기에는 또 여러 교사들에게 자극도 줄 수 있다고 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저는 자료요구를 그간에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막상 또 교육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의, 공개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공개하고 그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협조를 할 수 있

고 이런 점에 대해서 검토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답을 좀 주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이것을 어떤 범위에서 어떤 형태로, 공개라기보다 이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 정보를 조전혁 위원에게 전달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집중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그동안에 전혀 공개가 되지 않은 그런 정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또 아주 쉽게 공개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자료가 2003년도 이전 것과 2003년도 이후 것이 서로 잘 매치가 안 됩니다, 컴퓨터상으로.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한 10년 정도의 정보를 우리가 빼내려면 우선 그것이 상당한 작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기관이 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이 지금 수능시험을 볼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상황이고 거기서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을 할애해서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적인 면을 검토하고 있고, 또 하나는 법률적인 면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어떻게 하느냐,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개인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공개하게 되면 그것은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인 정보 파일을 개개인의 이름부터 포함해서……

○임해규 위원 장관님, 알겠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런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

○임해규 위원 잠깐만요, 발언을 잠깐 멈추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더 있겠지요? '학생들 성적에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또 더 나가면 '학교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요?

예견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렇게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시다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관께서 엊그저께 조전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저러한 의도로 자료요청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너무 쉽게, 너무 심사숙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보고, 방금 고려하신 그런 여러 가지의 법적인 것에 대한 검토와 판단과 이런 것들을 마치고 답을 하셨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그것 어떤 식으로 열람케 하시든지…… 그 자료를 드린다고 하는 것하고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열람케 한다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각 위원에게 다 파일로 줘 버린다고 하는 것하고 장부로 빼서 주는 것하고 이것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아주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부작용이나 그것이 활용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의 깊이 있는 법적인 것도 검토 다 하시고 답을 드리겠다고 해야지 저는 적절한 답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박 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답을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제가 지금 답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부겸 임 위원님, 발언 취지는 알겠고요. 당일 날,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차 조전혁 위원의 요구에 대해서 장관께서 제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셨고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워낙 민감성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되고 그 기준이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의 판단이 있겠지만 만약에 제출하게 되면 그것은 조전혁 위원에게도 또 우리 상임위에 속한 위원님들에게도 모두 다 제출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점에, 이런 내용들은 위원장이 세 분 간사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한 기억 나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위원장 김부겸 그런 방식으로 아마 진행이 된다면……

조전혁 위원도 그날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조전혁 위원 일단 제가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 김부겸 그러니까……

○조전혁 위원 아니요, 그것은 속기록부터 해 가지고 테이프 틀듯이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월권입니다.

○위원장 김부겸 아니, 조 위원님이 받는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이 문제를 제출할 때…… 앞으로 표현을, 받는다고 하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속기록을 확인해서 3당 간사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저는 분명히 하여튼 수능하고 학업성취도평가 원테이터를 달라고 그랬고 장관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조 위원님, 잠깐만요.

김영진 위원님, 이 문제에 관한 겁니까?

○김영진 위원 예.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자료공개 문제는 일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육과학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이 주무 부서인 교육과학부 주무 장관인 안병만 장관께 자료요구 할 수 있고 또 그 자료요구가 국가의 안위나 사회적인 파장이 크게 미쳐서 법에 위반된다든가 지금까지의 사회적 통념적인 여러 상황들을 뒤흔들 만한 문제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자료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날도 발언을 신청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견해를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경청을 했는데, 오늘 또다시 이것이 재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우리 한국의 교육 사회, 교육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은 정부로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 동료위원들 포함해서 제 자신이 요구한 자료라 할지라도 이것이 문제가 크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의 요구에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여당 위원님께서 장관을 향해서 요구를 하고 장관께서는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하고…… 저는 이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어떤 저의와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뭘 생각하면서 이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는가,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지나친 경쟁, 너 죽고 나 살기식 교육제도, 그래서 실력이 떨어지면 도태되고 그런 경쟁 교육으로, 전인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뒷전에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히 우려되고 있는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오는 사회에 미칠 파장 심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교육부장관께서 이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거기서 얻어질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고 이득이 있다고 하는 한건주의, 또 이것을 입수해서 공개함으로써 얻어질 부수적 효과 이런 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부장관께서 답변하신 내용만 우리가 그냥 듣고 있어도 '아, 저 자료는 공개함으로써 심대한 영향을 주고 미칠 파장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관께서 그렇게 간단하게 그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칠 파장, 앞으로 장관께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까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위원장께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우리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위임했으면 그렇게 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상황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방금 이 자료를 공개할 때는 특정한 위원에게 다 달라, 주었을 때 그것이 미칠 파장은 누가 책임지게 됩니까? 우리 교육위원회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며 이 사태가 파장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 책임 문제 논하고 해 가지고 무슨 해결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교육부장관께서 어떤 저의를 가지고 그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어떤 뜻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날 여러분들이 모두 계셨습니다. 제가 대답하는 그 현장에 그대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상황 그대로입니다.

조 위원님께서 저한테 요청을 하셨고 저는 그 요청이 '학술적인 목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전부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알지도 못했고 저는 위원님들이, 특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 그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기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조 위원님께서 갑자기 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학술 목적이라고 강조하셔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파장이라든지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얘기했고 또 위원장님께서 이것에 관한 전체적인 것은 간사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서 저한테 알려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저의도 없고 그것이 무슨 음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그날 일어난 일을 다 관찰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장관께서는 사태 자체를 매우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그리고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파장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것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단견으로 '학술 목적으로 할 테니까 달라 그러니까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장관께서는 줄 수 없는 자료를 그냥 학술 목적이니까 주겠다고 답변하시고, 오히려 지금 박두하고 있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미세하게 챙겨 가지고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당연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부겸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그런 취지 충분히 전달……

이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실 위원님, 박영아 위원님, 그다음 권영진 위원님, 짧게 이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朴英娥 委員 송파갑 출신 박영아 위원입니다.

장관께서는 그저께 교과위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조전혁 위원께서 수능 원데이터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연구용으로 쓰겠다고 하신데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을 아시고 계시는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여기에 관해서요?

○朴英娥 委員 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여기에 관해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러면 그 소송의 쟁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조 위원 등 세 분의 연구자가 교육 현실에 관한 학술연구를 위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수능 원데이터와 그다음에 2002년, 200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에 대한 분석자료를 원데이터로 공개하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저께 장관의 답변은 이 요구를 수용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교과부는 고등법원에서의 패소를 안 받아들이고 지금 대법원 상고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장관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저께 답변의 취지로 봤을 때는 그러면 교과부는 즉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대법원 상고 문제는 제가 장관이 되기 전에 죽 진행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러나 장관께서 자료를 전달하고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리고 자료를 전달해 드리는데 어떤 형태로 자료를 전달해 드리느냐 하는 것은 현재 법률체계에 맞게 제가 드리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부겸 존경하는 박영아 위원님, 이렇게 논지가 계속 이전하게 되면……

마무리 해 주십시오.

○朴英娥 委員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그럼 권영진 위원님.

○권영진 위원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수능 원본의 '공개'라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공개'라고 표현해서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스스로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전혁 위원이 교과위원으로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이게 조전혁 위원에게 간다고 해서 일반에게 바로 공개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개의 범위도 원본을 어떤 형태로 해서 줄 것이냐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법률적으로 줄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교육위원회가 마치 이것을 일반 공개라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우리 스스로 위원들의 의정활동 부분들을 제약하는 얘기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이것을 원본 그대로 학생 이름까지 있는 것을 원 데이터를 그대로 파일로 해서 넘겨준다는 그런 표현 아니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조전혁 위원님께 기왕 장관님께서 자료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개 범위 부분과 관련해서 간사님하고 위원장님께서 간사님들하고 조전혁 위원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위원이 학업 성취도를 가지고 지금 어차피 고교선택제도 되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로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비밀이라고 안 주면 안 되는데 또 법률적으로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 부분과 충돌될 경우에는 그 부분들은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것을 '공개다'라고 해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데 '못 준다'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조정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부겸 안 위원님, 아마 취지는 당일날 대충 정리된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안민석 위원님.

○안민석 위원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전제는 똑같은 겁니다.

위원의 의정활동을 보장을 해야지요. 그것은 똑같은 것인데 정말 저는 조전혁 위원님께서 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신 것이 순수한 의도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쟁송을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라는 데서 이 쟁송을 시작했습니다, 수능 점수를 공개하라고. 그런데 조전혁 위원님이 이 단체의 공동 대표였습니다. 이 쟁송이 끝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그 단체의 공동대표였던 위원이 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게 순수한 학술적인 의도라고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학술적인 목적에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제출하겠다고 승낙했다는 것은 장관님이 깔려 있는 그간의 과정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무지한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부겸 안 위원님, 듣기에 따라서는 동료 위원의 인격에……

○안민석 위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제를 했는데요. 배경이 다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부겸 안 위원님, 발언 자제하시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임해규 위원님에게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 발언을 드리고 이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우선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께서 조전혁 위원님과 자유주의교육연합인가 그렇게 아마 알고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안민석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임해규 위원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 여러 가지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교육철학에 입각해서 요구한 것이고 법원이 지금 적절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그것이 어떤 다른 학문적인 목적 위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거나 마치 교육적이지 않은 목적이 있다고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동료 위원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것은 아마 조전혁 위원이 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런데 저는 어떻게 적절하게 유감 표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김부겸 임해규 위원님 마무리 지어 주시고요.

○朴英娥 委員 위원장님.

○위원장 김부겸 박영아 위원님 잠깐만요.

○임해규 위원 잠깐만요, 얘기를 일단 마치고

할까요? 그리고 저희 한나라당 위원님이 아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파장이나 이런 게 우려가 되어서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가 우리가 자꾸 '공개'라는데 '공개'라는 표현보다는 분명히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사회적인 파장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적절하게 자기의 연구 목적에 활용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는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더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은 일정하게 모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런 교육적인 목적, 그리고 교육정책을 잘 수행하고 우리가 또 교육적인 목적으로 정책조언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거든요.

저희 한나라당의 그런 뜻을 위원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또 교과부에서도 저희들의 그런 뜻을 염두에 두시고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저희들 논의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여러 가지 검토해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부겸 임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발언하시는 여러 취지는 당일 속기록을 꼭 한번 다시 읽어 보십시오. 그날 정확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아마 그 자리에서 이석을 하시거나 혹은 잠시 집중을 안 하셔서 그런 모양인데 지금 논의했던 초점들이 그날 우려되어서 다 제기되었고 그 자리에서 장관 답변이나 저희들이 논의를 정리할 때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이 문제를 성숙하게 봐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부에서 이 자료를 조전혁 위원에게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조전혁 위원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 적절한 수준에서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안민석 위원 왜 조전혁 위원의 동의를 받습니까?

○위원장 김부겸 아니, 조전혁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한 데 대해서 장관의 발언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날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안민석 위원 표명하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전혁 위원님이 요청을 했지만 그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문제의 결의가 아니었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래서 분명히 하실 것은 저는 조전혁 위원에게 제출되는 그것은 일반적인 공개라고 다 해석하고 있는데 권영진 위원께서 정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공개로 해석되고 있는 자료 제출은 조전혁 위원에게만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하는 전 위원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전혁 위원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연구 활동이라고 한다면 다른 위원에게도 다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위원이 아니고 순수하게 정말로 연구자로서 제출을 요구하면 연구활동으로 되는 것이지만 위원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일어나는 파장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아까 권영진 위원께서 우리에게 위원회 활동을 제약한다는 말씀도 하시는 것 중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이 파장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책임은 교과부에 있고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자료 제출은 원하는 모든 위원에게 제출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부겸 권영길 위원님, 분명한 지적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정리한 취지는 당일 속기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영아 위원님.

○朴英娥 委員 10초만 하겠습니다.

질문시간 한 2분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시작할 때 위원장께서 빨리 마무리하고 토론을 길게 하지 말자고 해서 제가 사실은 원래 하려고 했던 질문조차도 안 하고 종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니까 다른 위원들한테 두 번 이상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위원장께서 그리고 양당 간 시간 배분에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2분밖에 안 썼기 때문에 원래 하려고 했던 질문을 1분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 질문과 연결되어서 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의사가 있냐고 물은 이유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07년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법원에 항고한 이유는 교육의 철학이 지금 정권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권에서는 교육의 철학이 자율과 경쟁입니다. 그 취지하에서 장관께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저께 조전혁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였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 인사검증 때도 그랬고 장관의 교육에 대한 철학이 이명박 정부의 자율과 경쟁 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시는지 참여정권의 기조와 같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질문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빗나간 것 같습니다.

아까 대법원에서, 제가 그것을 취하하라고 하신 겁니까? 취하하는 것은 지금 당장 대답을 드릴 수 없다는 얘기를 드렸지요. 그러니까 그 대답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제 교육에 대한 사상적 위치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을 받을 때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데 그것을 지금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어디에 서 있느냐고 질문하신다면 그것은 질문이 조금 빗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朴英娥 委員 제 말의 취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장관께서 이명박 정부의 정권과 교육철학이 같다면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을 포기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공개하는 것도 현재 법률 속에서 공개해야 합니다. 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법률적으로 대법원 항고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까?

○위원장 김부겸 박영아 위원님, 오늘 질의응답 시간이 아닙니다. 이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장관님, 됐고요.

○김선동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선동 위원 조금 전에 조전혁 위원님께서 부재하신 상황 속에서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께서 조전혁 위원이 전에 일을 했던 특정단체의 이름, 실명을 거론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다만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순수하지 못한 의도'라는 부분들은 속기록에서 저희들이 여야 위원 간에 같이 교육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삭제해 주심이 어떨까 하는 상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부겸 안 위원, 어떠세요?

○안민석 위원 일단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사실을 왜곡했거나 아니면 과장했거나 없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백번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을 얘기했거든요. 이 문제가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라는 단체에서 끊임없이 수능시험 점수를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고 결국에는 쟁송까지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조전혁 위원님께서 이 단체의 공동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대표가 주도해서 이 쟁송이 붙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이 지금 국회에 들어오셔서 이 자료 제출을 요청했을 때 이것을 누가 순수한 학술 의도로 받아들이겠느냐는 겁니다. 순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차라리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하셨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차라리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1437개 고등학교 1등부터 1437등까지 순위 매겨서 줄 세우고 싶어 죽겠지요? 그 얘기하고 싶지요?

○위원장 김부겸 안 위원님 지금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안 위원님의 발언이 동료 위원의 인격에 흠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위원장인 저도 전했고 동료 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안 위원님께서 그렇게 입장 표현을 하셨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없는 거지요?

○권영진 위원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 위원님, 사실 저희들 같은 동료 위원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되기 전 자기의 전직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던지 간에 그것은 자기가 살아온 역사이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단체가 임명을 해서 국회의원이 된 것 아니거든요. 자유교육연합이 수능성적을 공개하라는 게 안 위원님의 철학에 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전혁 위원님은 그러한 단체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자기 교육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자유교육연합의 전 의장 자격이나 대표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 자격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직하고 연결시켜서 저의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같은 동료 위원끼리 해서 될 이야기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부겸 권영진 위원님, 그만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 잠깐만요……

○권영진 위원 이것은……

○위원장 김부겸 권 위원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문제 제기를 했지요……

○권영진 위원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위원장 김부겸 그래서 본인에게 유감 표명할 뜻이 있느냐고 임해규 위원이 질문을 한 데 대해서 본인이 입장 표현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여기서 논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진 위원 속기록 삭제 문제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부겸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안민석 위원 제 얘기 중 뭐를 속기록을 삭제해야 됩니까?

○권영진 위원 ‘순수하지 못한’ 이런 표현들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앞으로도 저희들 나름대로 여와 야가 당은 다르지만 다른 관점에서……

○안민석 위원 거두절미하시면 곤란하고요. 장관님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셨을 때는 학술적인 목적으로 쓰여질 것을 믿기 때문에 제출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이 학술적인 목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안 위원님……

○권영진 위원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안민석 위원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해 볼 문제지, 제가 제 소신을 가지고 한 이야기를 가지고……

○권영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과위에서 논의를 할 때 어떤 위원님의 발언이 내 철학하고 안 맞을 때 그분이 살아왔던 역사나 전직을 가지고 불순하다는 식으로, 순수하지 못한 저의라고 이렇게 얘기해서야 동료 위원들끼리 논의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안민석 위원 그 말씀을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부겸 안 위원님, 저희들이 사적으로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위원장님, 다른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그만하시지요.

○권영길 위원 아니, 다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철우 위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위원장 김부겸 이 건이 아닙니까?

○권영길 위원 예.

○위원장 김부겸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 위원 아까 이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전혁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다가 질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긴급현안질의가 있는데 이것 처리하고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이니까……

○위원장 김부겸 아닙니다, 이 안건에 대해 처리하고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부겸 예.

○임해규 위원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부겸 저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또 국민들이 저희 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저희 위원들끼리 이런 논쟁이 되풀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부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매끄럽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안민석 위원 발언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안민석 위원 장관님이 학술적 목적으로 이것을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의 그동안 히스토리,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순수하지 못하게 이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바로 비학술적인 취지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제가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표현상에서 '순수하지 못하다'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의 취지와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유감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민감성, 폭발성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서, 그리고 이 자료는 반드시 독점돼서는 안 되고 적어도 교육위원회 전체가, 만약 제출한다고 그러면 공동으로 제출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제출에 따른 사회적 후폭풍과 파장은 우리 교육위원회가 다함께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주장을 하시거나 발언을 하실 때 동료 위원들 또 우리 국회에 대한 여러 가지 명예라든가 인격에 관한 부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서 서로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까 보고 받으신 결산·예비비 등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시정요구서(안)대로 정부 측에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시정요구서(안)에서 자구정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은 물론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모든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의제에 대한……

○권영길 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분명히 위원장께 말씀을 드려서 위원장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이 안건 처리하고 긴급현안질의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장관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장관께 긴급현안질의를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겸 여러 위원님들, 오늘의 주요 의제에 대한 처리는 끝났습니다마는 긴급현안질문을 하시겠다는 권영길 위원의 요구를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권 위원님 5분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장관님, 국방부의 근현대 교과서 수정 요구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이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

○권영길 위원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비극적인 분단과 독재의 역사를 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씻지 못한 상처를 넘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87년 이후의 우리의 역사는 국민통합의 역사였으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역사였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길 위원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이 국민적 합의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그 독재정권의 역사성을 이어받고 있는지 아니면 민주정부의 역사를 이어받고 있는지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민간인 학살의 당사자였던 군사독재의 계엄군을 계승하는 것인지 국민의 군대를 표방하는지 우리 국민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

과부가 민주주의 역사를 담은 교과서를 만들지 독재의 망령을 되살리는 교과서를 만들어 낼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장관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 국방부의 이른바 불온서적 지정에 뒤이은 이번 현대사 교과서 개정 요구는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서 민주주의 발전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친북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광주 민주화 항쟁을 폭도로 몰아 시민을 학살한 그 역사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광주영령과 광주인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입니다.

제주 4·3 항쟁은 제주도민의 비극이며 온 국민의 비극입니다. 제주도민들은 아직도 그 학살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완전한 명예회복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서 제주도민에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입장은 그 사과마저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군은 국민을 위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반성을 해 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 내는 것을 군의 진정한 자랑이며 명예로 여기며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군의 입장은 그 노력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교과부장관의 정확한 입장을 말해 주십시오. 교과서 개정에 관한 국방부의 망언에 편승할 것인지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입장을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저도 국방부에서 이번에 있었던 교과서 수정 제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제출했다가 다시 철회하고 그것이 국방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고 얘기한 점을 저는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방부 전체 의견이 아니고 그중의 일부 어떤 개인의 의견이 잘못 수록되었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으로 끝을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 위원님께서 처음에 나왔던 국방부 의견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스스로 그 문제를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제가 저의 검증 과정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미 1987년을 전환점으로 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화가 이제 성숙 단계에 도달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면에서도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역사를 돌이켜서 잘못 해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과서의 재작성은 그러한 역사 속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는 편파성이 없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권영길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같은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존경하는 박영아 위원님부터 위원장이 여야 간에 편파적 발언 기회를 준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그러면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저 역시도 이번의 그 국방부 사건은 진짜 저는 망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과부 차원에서는 그 담당자 문책을 분명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글쎄, 우리가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조전혁 위원 문책을 요구할 수 있지 왜 못 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것 한 번……

○조전혁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국방부에는 경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는 국방이나 잘하고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저는 맞습니다. 국론 분열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관계없이 단호하게 경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조전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진 위원님 발언하시고 권영진 위원님 그 다음 발언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우리 안 장관님께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교과서 수정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가 어느 한 개인의 주장과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 교육 주무부 장관에게 이것을 시정하라는 그런 의견서를 냈다는 것을 지금 답변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는 교과서 개편 등과 같은 그런 파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국방부장관이 얘기하니까 교육부장관께서는 '이것은 더 이상 확대가 안 되고 이걸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게 아니고 그 경위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경위가 답변이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교과부는 뭡니까? 어느 한 개인이 한 부처를 통해서 교과서를 개편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냥 우리 교과부에서는 그런 것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는 것이 국방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정부의 전, 모든 부처의 우리 교과서에 대한 문제를 자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장관께서는 '국방부가 어느 한 개인의 잘못된 의견을 근거로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니, 요청을 했다가 취소를 했으니까 제가……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도 지금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다른 부처에서 지금 온 것이, 부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김영진 위원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다른 부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이미 다른 부처에서 교과서 개편에 대한 의견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고 계시면……

사실은 저희들이 질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국정감사가 눈앞에 박두되고 있는데 자료 요구를 우리 위원들이 하면, 이건 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우리 동료 위원님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8월 28일 날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 와요, 지금까지. 몇 번을 재촉해도 자료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가 직접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서 산하기관에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오기에 산하기관에 한번 물어봤더니 자신들에게 위원님이 요청한 국감자료 제출 요구를 9월 9일에 처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 10일 가까이를 자료제출 요구서마저도 산하기관에 전달이 안 되고 지금 사장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정감사가 되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이것 다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구하고 있는 자료 중에도 이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국방부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에 대해서 요구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요구한 자료 중에는 연구용역 사업의 내역이라든가 각종 위원회의 현황이라든가 교육통계연보라든가 교원의 징계 현황 같은 것은 이미 자료화되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 제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돼요. 기본 자료도 안 내놓고 있어요. 통계라든가 이런 것은 내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제출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작성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 좀 뒤로 가는 건 그건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방금 문제되고 있는 이 부분도 다른 부처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과서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빨리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다음, 권영진 위원 발언하세요.

○권영진 위원 장관님, 교과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검인정교과서 근현대사 부분 몇 종인지 아세요? 6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6종……

○권영진 위원 한번 보셨습니까, 검인정교과서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잘 아직 보실 기회 없었지요, 그것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다 보지는 못했지만 대개 봤습니다.

○권영진 위원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서 검인정 교과서 내용과 관련되어서 발췌되어 나온 부분 기사는 읽으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권영진 위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과부가 인정해 주는 교과서를, 그런 교과서를 고등학교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른 역사 그리고 객관적인 역사, 공정한 역사 해석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그 교과서 문제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정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심도 있게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결과가 총체적으로 나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가부간에 답변을 제가 듣지는 않겠습니다. 장관께서 직답하시기가 참 애로사항이 있으실 텐데요.

다만 어떤 나라의 역사에도 명암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도 어두운 그림자와 그리고 밝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방 이후만을 놓고 보더라도 분단과 그리고 독재정권 그리고 산업화 성장 과정에서의 어두운 그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 대한 교훈으로 삼아서 미래를 열어 나가는 데 있어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역사 속에는 해방 이후에 지금 건국 60주년 되는 동안 우리 역사를 세계는 또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분단이었지만 반쪽이나마 자유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건국의 역사, 이 부분들은 지금 돌이켜 놓고 생각하면 참으로 자랑스러운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과정은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을 했던 우리 국민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지도자의 지도력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토대 위에서 민주화의 위업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대로 우리 후세들에게 심어 주고 가르쳐 줘야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 이런 부분들도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건대는요, 우리 6종의 교과서들 제가 대체로 죽 읽어 봤습니다.

발달사만으로 저는 기술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저항사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저항사를 배우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않고는 교육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탈대한민국 이런 부분들도 그러한 차원에서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장관님께서 전체적으로 교과서 특히 근현대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데 맡기셔서 명과 암이 잘 조망이 되고 대한민국의 어두운 부분들은 앞으로 밟지 말아야 될 전철로서, 그런 교훈으로 삼도록 하고 밝은 부분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그런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박영아 위원님.

○朴英娥 委員 송파갑 출신 박영아 위원입니다.

며칠 전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특례법 시행안이 확정됐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교원단체의 학교별 현황이 공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朴英娥 委員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교사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 보면 그 대학에 속한 교직원, 특히 교수 요원의 인적사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생년까지 나와 있고 학력과 경력 그리고 최종학위 취득 시의 전공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현재 가르치고 있는 과목이라든가 전공은 소속과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 자녀가 속한 학교도 그렇고 여러 학교의 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교사에 대한 정보가 정말로 거의 없습니다. 아주 많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과목을 가르치시고 몇 학년 몇 반의 담임이라는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교사의 학력이라든가 경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최종학위 시의 경력, 예를 들면 역사를 전공했다든가 아니면 가정을 전공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 본인의 최종 학력과 다른, 최종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정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배우고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좀더 많이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안에 교사에 대한 정보를 좀더 구체적으로 넣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논란 끝에 교원단체 학교별 현황을 공시 항목에 넣기로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더 나아가서 개별 교원에 대한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넣을 것을 한번 고려하실 수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제 생각에는 대학과 초중고를 같이 비교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교수들이 직접 만들어서 입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수들이 원하지 않는 자료를 학교에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에서 이용되고 있는 자료 현황하고 초·중·고교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 현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초·중·고교에서, 지금 마지막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은데, 개개인이 어떤 단체에 속하고 있는가 그것을 개개인별로 다 식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개인의 인권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과 직결되는 부분은 우리가 공시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숫자화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아까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최종 학력 시의 전공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실제 전공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문제의 발단적인 교정을 위해서는 정보공시가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은 한번 제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러면 다음 교과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겸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원래 오늘 답변 듣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 답변을……

장관님,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오늘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아직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 없도록 또 공공성이 지켜지도록 법안을 다듬었으면 싶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병만 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3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권영길	권영진	김부겸	김선동
김영진	김춘진	박보환	박영아
서상기	안민석	이상민	이철우
임해규	정두언	정영희	조전혁
최재성	황우여		

○청가 위원(1인)

김세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전문위원	이진호
전문위원	문강주

○정부측 참석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병만
제1차관	우형식

제 2 차 관	박 종 구
기 획 조 정 실	
실 장	장 기 원
정 책 기 획 관	남 진 웅
인 재 정 책 실	
실 장	박 종 용
인재정책기획관	이 종 원
과학기술정책실장	이 상 목
국 제 협 력 국 장	이 은 우
평생직업교육국장	서 명 범
학 교 정 책 국 장	심 은 석
교육복지지원국장	황 인 철
학술연구정책실장	이 걸 우
원 자 력 국 장	문 병 룡